

“탐욕과 번뇌 녹이고 자비 가득한 세상 만들자”

자비심으로 불도 인도해야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일운소우(一雲所雨)에 칭기종성(稱基種性)하여 이득생장(而得生長)하니 화과부실(華果敷實)하느니라 <법화경 약초유품> 중 한 구문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나 그 종자는 성품에 맞게 성장하여 꽃과 열매를 맺느니라. 초목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 보는 이의 마음에 아름다움과 기쁨을 알게 하며, 과실을 열어 배고픈 이를 구제해 줍니다. 부처님이 사바에 오신 일은 어리석음으로 욕망과 괴로움에 길 잃은 중생들에게 꽃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모든 불자들은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일과 본인의 수행을 하고 나아가 구석진 곳에 눈을 돌려 중생구제의 손을 내밀어 자비심으로 불도에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꽃피 날리는 립비니 동산에서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헌불 스님



꽃피 날리는 립비니 동산에서
우리 중생들의 깨달음의 고향
여기 이곳에 바람으로 태어났다
세상의 아름다운 벗이 되어 삶의 정물 그리고 싶다

향락으로 보내기엔 아까운 시절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스님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마음을 밝혀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둘이 아님을 절 대적으로 믿고 수행하여 부처님 같이 성 불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몸 만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진 지금 향락의 세월을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탐욕과 번뇌를 녹여버리고 자비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주위에서 고통 받는 모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처님오신날 위로와 자비를 베풀습니다. 불자님의 가정에 불이 환한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혜와 선정을 닦아 감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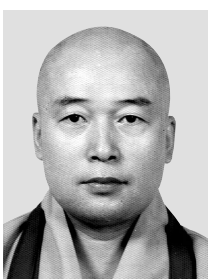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아함경에서 부처님 말씀!
선정(禪定)이 없으면, 지혜(知慧)로울 수 없고, 지혜가 없으면, 선정을 닦을 수 없다. 도(道)는 선정과 지혜로부터 얻어지나니 거기에서 비로소 열반(涅槃)에 이르게 되느니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존의 가르침에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깨달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아집, 명예, 학벌, 외모>가 아닌 바로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소중한 것을 알게 되면, 다툼과 경쟁이 사라지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극락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살기 좋은 세월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한 조각 밝은 빛 드러내리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총재 각성 스님



모든 산이 한 빛이요, 물 또한 전체가 법신이다.
본래 말과 글로 부촉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강제로 마음 법을 전하는 체 하는 것은 네가 이미 법을 받아가져왔으니 마음 법을 다시 어찌 말하라 별빛 하나있어 어둠을 밝힌 밤 모든 산이 한 빛이요 물 또한 그러하네.
한 조각 밝은 빛 온 몸을 드러내리.
선달 밥 편 매화는 눈 쌓인 뒤의 가지로다.

가르침을 실천하라

세계승가회 회장 수완나 스님



진리는 불생불멸이요, 부증불감이라. 자성 그대로가 진여요, 빛나는 그 마음이 부처인데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고 있습니까.
부처가 화신(化身)을 이룬 이치도 중생을 구하고자함이거늘 중생들이 오늘날 해탈에 이르지 못하는 고귀한 가르침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꿩을 잡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올미년 불탄(佛誕)을 맞이하여 오로지 부처의 가르침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일체의 불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소중한 법연으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체대비로 서로를 아끼세

(사)대한불교원용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이 사바세계는 혼탁하고 어둡고 두렵습니다. 이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광명으로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탐진치의 무명 속에서 고통 받고 심음하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그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하시오자이 땅에 나투신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리아타 동체대비로 서로를 위해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신 참뜻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참 불자로 거듭 납시다.

자비심 일념으로 화합을

(사)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흥 스님



사기자막독(已起者莫讀)하고 미기자방기(未起者莫起)하라
이미 일어난 생각은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생각은 일으키지 말라. 사바에 오신 부처님의 큰 뜻을 바로 진리 진실 화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빈자일등'이라 하여 물질에 구애됨이 없고 오로지 부처님을 향한 자비심의 일념으로 등을 달고 심중소고소원을 비는 것이 우리 불자의 한결같은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을 내어 불국토 건설에 매진토록 합시다.

따뜻한 손길은 곧 수행입니다

(사)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스님



무명(無明)과 끝없는 욕망 속에 갇혀 있는 불성(佛性)을 일깨워 중생을 다시 부처로 태어나게 하였고, 고통 속에서 큰 깨우침을 일으켜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습은 나와 이웃과 자연은 모두가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으며, 결코 둘이 아닌 하나의 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찾아가는 수행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합니다. 삼계가 두루 열리고 작악과 수련이 활짝 핀 앞뜰에 별과 나비가 춤추고 저 건너 산에서는 꿩소리 요란한데 어찌 몽환 속에 피는 공화를 혼자서 잡으려 애를 씀니까. 만물은 원래부터 한 뿌리입니다. 사바의 참모습은 수억만 년 동안 비취주는 해와 같고 티없이 맑은 창공과 같이 청정한 것인데 분별심을 일으키는 마음에서 하나가 열이되고 열이 백이되고 그로써 욕심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분별심을 버리고 더불어 하나가 됩시다.

상락아정 무위도를 이룬다네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올미년 사월초파일 산천초목이 푸르니 등불이 밝아지는 도다. 번뇌가 가득한 어리석은 중생을 사바세계 열불소리로 세척하니 삼계대도사 부처님이 출현하시 상락아정 무위도를 이룬다네.
삼제불 역대조사 명훈 받들어 내의 청정하여 계율성과 높이 쌓아 불생불멸이 불국토에 함께 하여 오유평풍 역순경계 사라지는 도다.

연못 연잎의 빗방울처럼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무산 스님



가을 물길 높은 하늘에 아득히 질푸르고 흰 갈대꽃에 밝은 달이 오가니 산천수목 모아가 비로자나요, 사바세계가 변하여 화장세계로다.
황성 감철에 아카시아 꽃피 내리고 오월의 세소리는 부처님의 참 법문이다. 양안에 벼들 꽃은 바람에 눈같이 날리고 연못의 연잎에 빗방울이 구슬 되었네. 밝은 달은 이즈러진 일이 없는데, 중생의 차별성이 종승달은 이즈러져 보이고 보름달은 둥글게 보인다네.

자성을 깨우치고 성불의 길로

(사)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자리아타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번뇌와 무명 속에서 해매는 일체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참으로 기록한 날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해명을 받들어 자비와 나눔을 앞장서 실천합니다. 빈부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한치 앞도 모르며 성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치유하고 밝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을 높이 받들고 실천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온갖 부처님 만나게 해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부처님은 화사한 광명으로 우리 곁에 항상 계시었습니다. 화엄경에 이르길 '믿음의 마음은 때(구)가 없어 마음을 깨끗하고 교만을 멸제하고 공경의 근본이다'고 하고 '믿음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요 깨달음을 이끌어 주며 수승한 지혜를 쌓게 하고 온갖 부처님을 만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믿고 이해하는 마음이 열릴 때 세상은 화기애애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믿음의 세상'을 펼치는 굳은 신심으로 무장해, 불신의 벽을 허물고 반쪽의 시각을 깨뜨려 화합상생의 길을 열어 갑시다.

바람 또한 그 이상 없어야 하느니라

(사)한국불교연화조계종 종정 연화 스님



우리는 모두 업보중생. 한 생각이 미하면 업보파라 윤회하고 한 생각이 청정하면 결립 없는 바람이라. 바람 또한 그 이상이 없어야 하느니라. 부처님오신날은 모든 이들이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원해 봅니다. 정진하고 정진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혼란을 치유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면 됩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가 바로 되기 위한 발원과 함께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면 이 암흑세상은 밝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이타행 본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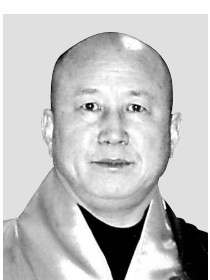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스님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두루하기를 발원합니다. 오직 중생의 행복을 위해 고행 하신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실 때까지 이타행을 실천하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행보다는 말(言)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구업만 잔뜩 쌓아놓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이타의 실천 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는 극락정토를 만들어 나갑시다.

우주 천지가 내 마음일세

(사)대한불교심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여래의 기록한 말씀, 여래장 진리의 법향기, 여래의 광명을 밝히는 봉축의 기쁨을 나누며 여래의 사자후 화합대중이 됩시다.
이 땅에 불국토 원력으로 만국의 아픈 한 치유되어 대한민국 빛나게 하소서.
하늘땅이 한 몸이요 내 마음이 주인이니 좋은 말하는 사람 하늘 문이 열리고 나쁜 말하는 사람 지옥문이 열리니 허공중에 허튼소리 독이 되어 찰나순간 지옥세상 만드나니 오는 부처 마다 말고 환영하며 가는 부처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나무아미타불

편견과 아집 없는 곳에 불성 발현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실천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저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윤회에 떨어지게 됩니다. 불법(佛法)을 영계하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대도에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편견과 아집이 없는 곳에 불성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올미년 부처님오신날 내 안의 부처를 찾기 위해 정진 합시다.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심을 다시금 봉축하며, 이 땅의 평화로움을 위해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스스로 허물 돌아보는 기회

(사)대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승 스님



인도 립비니 동산에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불소식을 보내옵니다. 먼저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심을 봉축 드리며,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끝없는 구도로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나 자신에서 비롯되었으니 남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허물을 돌아보아야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부처님께서 여러서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요, 자비와 지혜를 베풀고 나누어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도록 합시다.

만상이 일심이라

(사)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스님



일심(一心) 만상(萬像)이요, 만상이 일심이라.
이것이 우주와 더불어 쌓이고 덮혔으며 일월(日月)과 더불어 빛을 발하여 진대지(盡大地)가 진소식(眞消息)을 하리라. 한 생각 당처에 한없는 보배가 바람따라 백운 가운데 꽃피리라. 결제에 결제가 없고 해제에 해제가 없는 것이 진정한 제제라고 했는데 금일 대중은 어떠한가?
물심현상이 무상함이니 이는 생멸하는 법이로다.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생명을 마차어 적멸로 즐거움을 하리라.